

## c.멜리데 섬에 가까스로 상륙하다

### 사도행전 27장 27-44절 말씀

#### 육지에 가까워지다

-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 
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 
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
-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 
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
-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 
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

#### 도망치려는 사공들을 붙들어두다

-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 
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
-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 
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
-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

#### 바울의 권면

-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 
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
-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 
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 
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
-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
-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
-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

#### 식량도 버리다

-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

### 항만에 들어서며 배가 깨지다

39 날이 새매

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 
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

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

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

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

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

### 군인들이 죄수들 죽일 것을 건의하다

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

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

### 멜리데 섬에 상륙하다

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

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

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

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